



보도시점 2023. 4. 27.(목) 12:00 배포 2023. 4. 27.(목) 09:30

##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6.25전쟁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7일(목),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 및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표들과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에 방문하여 6.25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였다.

○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혈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종섭 국방부장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등 한미 군관계자들과 참전 및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였다.

\* 박운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방문중인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25일 양국 정상 내외가 부부 동반으로 링컨기념관 등이 위치한 West Potomac Park (웨스트 포토맥 파크) 내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하고 3만 6천여 명의 미군, 카투사 7,0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희생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던 바,

○ 한 총리의 헌화는 위 행사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미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와 동맹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유엔군 중 가장 큰 규모의 파병을 한 만큼, 전쟁기념관 내 유엔군 전사자 명비 56개 중 미국 전사자 명비가 48개를 차지하고 있다.

\* 유엔군 전사자 총 40,800여명 중 미군 전사자 36,574명

○ 실제로 미국은 1950년 6월부터 1955년 3월 철수 시까지 연인원 약 1,789,000여 명을 파병하였고, 사망 36,500여명, 부상 92,100여명, 실종 및 포로 8천여 명 등 총 13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화에 앞서 진행된 사전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대표로 참석한 윌러드 벌러슨(Willard M. Burluson) 미8군사령관(중장)에게 6.25전쟁 미군 전사자의 희생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했다.**

○ 아울러,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미군 전우를 추모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6.25전쟁 참전유공 어르신들께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지켜온 산 증인”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영두 (044-200-2125)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중 령 조창모 (044-200-2137)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윤형진 (02-748-6330)
	한미동맹70주년TF	담당자	중 령 박경원 (02-748-6346)